

▶▶▶ Talk Talk Talk \_ 10대의 눈으로 바라본 에이즈

레드리본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별, 성별로 한명씩 에이즈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에이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담당자들이 각 사업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감기나 두통은 심각해도 에이즈는 글썸~

글 백지영 · 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나는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지금도 자세한 것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감기나 두통과 같은 병은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에이즈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생각했었다.

이번에 학교에 오신 외부 강사님의 소개로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 아

주 일부만 알게 되었다. 내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은 직접 에이즈라는 병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에이즈와는 아주 무관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에이즈의 증상은 어떤지도 관심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아이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성에 대해 개방적이나 성병이나 에이즈에는 무관심해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스킨십은 점점 더 과감해져서 어른들 못지않다. 만난 지 하루 만에 손을 잡고 이튿날에는 키스를 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다. 손잡는 정도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입을 맞추는 일도 아무 것도 아닌 듯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 작은 스킨십으로도 쉽게 시작 될 수 있는 게 성관계라고 들었는데 아이들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입맞춤을 한다고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킨십을 가볍게 생각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에이즈환자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에이즈에 걸린대거나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는데 몇몇 포래 남자 아이들이 몰려와서 같이 놀았다고 한다. 그런데 내 친구의 친구에게 남자아이들이 “어서 하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내 친구는 무척 놀랐다고 한다. 다음 아닌 성관계였던 것이다. “너도 할거야?” 라는 말에 그 집에서 급히 뛰어나왔다고 한다. 내 친구의 그 친구는 남자아이들과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내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키스를 해봤다거나 성관계를 가졌던 아이들에 대하여 알고 있다던가 하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성에 대한 의식들이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에이즈를 “희귀병이니까 난 안 걸릴 테니까” 하고 여기고,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른들도 우리에게 에이즈에 대해 심각히 말씀해 주신 적도 없었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정작 우리 주위에 에이즈 환자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건지도 모른다. 내게 누군가 더 심각하게 에이즈에 대해 인식하게 해주고, 스킨십을 가볍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설블리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에이즈를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번 강의를 통해 들은 것 말고도 에이즈를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에이즈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본 에이즈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에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의 일탈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그 무언가가 어서 생겨났으면 하는 내 작은 바람이다. 그러면 먼 훗날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에이즈는 이런 병이란다. 너도 걸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학교나 사회 차원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더 나아가 감염인들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아이들은 에이즈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인식해서 감염자인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고 걸릴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